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배지혜	소속(학부/과)	고분자공학전공
파견 학기	2019-1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Jena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에 오기 전부터 언젠가 해외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외국인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며 교류하는 것이 상상만 해도 흥미로웠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대학생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한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지리적으로 모든 나라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독일에 지원하여 유럽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제가 지원한 예나응용과학대학교의 경우는 파견 몇 개월 전쯤에 지원서를 작성하라는 메일이 오는데, 독일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문항이 영어로도 적혀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고 작성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그 쪽 학교의 국제교류 선생님인 로버트에게 메일을 보내면 아주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십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숙사 신청인데, 우선 교환학생 합격 발표가 나면 제일 먼저 기숙사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나는 학생 도시에다가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숙사 자리가 없어서 최대한 신청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 신청은 <https://tl1host.eu/SWJ/#home> 이 홈페이지에서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은 개강 전에 학교 홈페이지 Scientific Instrumentation 부서에 들어가서 해당 학기에 열리는 과목을 확인하고, 로버트가 이메일로 보내주는 양식에 듣고 싶은 과목명을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갈 필요 없이 가셔도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무비자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고, 독일은 일처리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관공서에서 비자 테어민(약속)부터 잡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비자 늦게 나오면 여행도 못 갑니다. 경험담 될 뻔 했으니 명심하세요.) 비자 발급은 여권 사진과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 간단합니다. 제 경우는 같이 거주기로 한 독일인 튜터가 당일 날 못간다고 하는 바람에 영어도 못하는 독일인 직원과 거의 바디랭귀지로 소통하면서 만들고 왔는데,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그냥 준비해간 서류 다 보여주면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에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과 오라고 하며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영어 못하는 직원이 걸릴 경우에는 웬만하면 독일인과 함께 가는 편이 낫습니다.

항공권은 출국 4-5개월 전쯤에 예매했는데 보통 독일은 루프트한자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고, 저 또한 루프트한자 왕복(인천-프랑크푸르트)으로 90만원 정도에 예매하였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예나응용과학대학교는 독일 중부의 예나라는 도시에 위치해있고, 바로 옆에 유명한 광학 회사인 Carl-zeiss가 있습니다. 캠퍼스의 크기는 금오공대보다 조금 작지만 실험실, 도서관, 학생 식당 등 각종 시설들이 알차게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 수 또한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학생증(토스카)를 이용하여 튀링겐 주의 버스, 트램,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증을 이용하여 튀링겐 주 내의 에어푸르트, 바이마르 같은 도시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 시내에 도착하는데 시내에는 영화관, 쇼핑몰, 음식점, 마트, 공원 등 웬만한 시설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마트도 있기 때문에 음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일은 비가 엄청 자주 오는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자주 내립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쌀쌀하고 날씨가 흐립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햇빛이 무척 강해서 불쾌지수가 상승합니다. 기숙사와 강의실은 물론 모든 건물에 대부분 에어컨이 없어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여름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습하게 덥지는 않아서 견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나에서 프라하까지는 버스타고 5시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독일 내 다른 도시 가는 거보다 가까움) 프라하 여행을 다녀오기 좋습니다. 그리고 베를린도 버스타고 3시간 정도로 가깝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전공수업 하나와 영어 수업 다섯 개를 들었는데, 영어 수업은 예나응용과학대 말고 프리드리히쉴러대학이라는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수강하려면 오피스에 따로 찾아가 수강신청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낸 후,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 당 20유로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공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다보니 아무래도 한국에서 수업을 듣는 것 보다 더 집중해야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듣다보면 어느 순간 적응하게 됩니다. 저는 전공 수업에 실험 수업까지 포함되어 외국인들과 같은 조가 되어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알려줘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견된 여름 학기는 4월에 개강하여 7월 초중순쯤에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름 학기에는 부활절을 비롯하여 공휴일이 꽤 많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제가 살던 기숙사는 Siegfried-Czapski-Strasse 이고, 이 기숙사는 보통 5인실인데 1층만이 3인실입니다. 저는 1층에 배정받아 3인실에 거주하였습니다. 물론 방은 각자 따로 있고, 주방과 화장실만 공유하는데 각방을 쓴다는 점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2명의 룸메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한명은 인도네시아인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과 같이 산다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둘 다 너무 친절하고, 하루일과들을 공유하다보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걸어서 10분도 안될 정도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시내까지는 버스타고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 한 달 생활비 : 기숙사비 238유로 + 인터넷비 10유로, 휴대폰 유심(알디톡) 10유로, 보험료(AOK) 90유로, 기타 식비&생활비 150유로.

* 독일은 마트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서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보다 식비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도 놀랄 정도로 저렴합니다. 한국에서 사오지 마세요.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예나응용과학대학교의 경우 독일인 튜터를 한 명씩 배정해줍니다. 각종 행정처리나 서류 준비 등은 보통 튜터가 도와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강 일주일 전쯤에 학교에서 각국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OT를 진행합니다. 그곳에서 각국의 외국인 친구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수강 신청을 비롯하여 모든 정보들을 그때 다 알려줍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예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엔타워에 올라가서 예나의 전망도 보고, 천문대에서 음악 쇼도 관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피자과 간단히 맥주를 마시면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강 후에도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치히'라는 도시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인당 25유로를 내고 1박 2일로 라이프치히에 다녀왔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BMW공장 견학과 시내 투어,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인 라이프치히 동물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마 매학기 마다 도시만 다르게 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싼 가격에 독일의 다른 도시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멘자'라고 하여 학생 식당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많습니다. 예나에 멘자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내 쪽에 위치한 필로소피 멘자가 메뉴가 제일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예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동아리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스포츠 동아리가 있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몇 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고, 각 스포츠마다 전문 강사님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전문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친목도모의 목적보다는 정말 스포츠 정신으로 동아리를 가입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배드민턴과 바디핏을 신청하였고, 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일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디핏 수업이 좀 더 운동이 많이 되고 신나서 좋았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독일은 테어민(약속)의 나라입니다. 각종 행정처리, 은행, 보험 심지어 병원까지 다 테어민을 잡고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처리가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느려서 생활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모든 일처리는 보통 우편으로 진행되니 매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편함 확인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답답했지만 살다보니 금세 적응되고, 이것도 그들만의 문화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신 독일인들은 대체로 정말 친절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선뜻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며,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도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Hallo'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같이 인사를 해주면 됩니다. 가끔은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기도 합니다. 항상 느끼지만 제가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에 오기 전에 걱정되는 마음에 옷이나 여러 생필품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지내다보니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었을 물건들도 보이고 웬만한 것들은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다 팝니다. 하지만 가져오길 정말 잘했다 싶은 것들은 ※고무장갑(독일에 없음), 세탁망, 수저세트, 불닭소스(매운음식 좋아하면 필수!)※입니다.

앞서 말했듯 생필품(삼푸, 린스, 바디워시 등)은 dm과 rossmann에서 한국 가격의 5분의 1 이상으로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괜히 캐리어 무겁게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어려웠던 전공 수업을 영어로 들어보고, 외국인 선생님께 직접 영어를 배워보고, 마냥 궁금했던 외국인들의 생활 패턴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는 등 모든 일들이 너무나 새롭고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의 저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저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언어적 두려움이나 편견, 거리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곳에 가도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고민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날씨가 좋은 날에는 시내 근처의 paradies park에서 피크닉을 즐기곤 합니다.



캠퍼스 모습

캠퍼스 내 멘자(학생식당)